

제 1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우리 조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의 이름을 딴 '강화학과'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으시나요?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역시 잘 모르시는군요. 강화학과는 조선 후기 학자 정제두가 강화도로 낙향하면서 닦은 양명학적 학풍을 가진 학파입니다. 강화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정제두'와 '이건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마음이 곧 이치이며 선천적인 선한 마음을 실천하며 도덕법칙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기보다 마음과 생각을 참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정제두는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여겨 내면에 충실하여 참된 자아를 각성하고, 생활 속에서 도덕적 삶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화학파는 실학과 교류가 있었는데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와 자연법칙을 각각 생이지지라는 선천적 지식과 학이지지라는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하는 등 도리와 물리를 분리하는 맥락을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 과거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몇 살일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15살입니다. 강화학파의 명맥을 계승한 이건창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강화학파의 사상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쟁의 역사를 기록한 '당의통략'을 저술하고,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또한 암행어사로도 이름을 떨쳐 현재까지 공덕비가 남아 있습니다.

정제두의 묘는 2007년에, 이건창의 묘는 1995년 생가와 함께 강화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여기 강화나들길 길 4코스 '해까지는 나들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정제두와 이건창의 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난 주말 조원들과 함께 걷고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나요? (웃음)

저와 저희 조원들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비록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과 관련된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발표자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공적을 소개하여 인물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강화 나들길을 소개하고 청자들에게 나들길을 걸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화제에 대한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36. 위 발표의 준비 단계에서 조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발표 내용에 반영된 것은?

- ① 지우 : 우리가 소개할 인물들의 생애를 연도별로 설명해 언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
- ② 민준 : 우리가 발표할 인물들과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며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도록 하자.
- ③ 서운 : 우리가 소개할 인물들의 유적이 관광 산업에 기여한 바를 덧붙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를 소개하도록 하자.
- ④ 서연 : 우리가 발표할 인물들을 선정하는 과정과 자료 제작 방법을 밝혀서 다음에 발표할 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 ⑤ 서준 : 우리가 발표할 인물들에 대한 현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발표 내용에 포함해 인물들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자.

37.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강화학파의 실학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 도리와 물리를 분리  
↳ 실학에서는 도리와 물리를 어떻게 분리하고 있을까?...㉠
- 정제두와 이건창은 어떤 사람인가?  
- 강화도로 낙향하면서 양명학적 학풍을 닦은 정제두  
↳ 도덕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 점에서 앞서 소개한 양명학과 그 결이 같군.....㉡
- 조선 시대 과거시험 최연소 합격자 이건창  
↳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가 연상되는군.....㉢
- 두 인물의 강화도와의 관련성  
↳ 둘 다 강화도에 묘가 있는데 생애 대부분을 강화도에서 보낸 걸까? 인터넷에서 찾아봐야겠어.....㉣
- 강화 나들길 4코스는 어떤 장소들로 이루어져 있나?  
- 정제두의 묘, 이건창의 묘 등  
↳ 지역 차원에서도 강화 나들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군.....㉤

- ① ㉠ : 발표 내용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② ㉡ : 발표 내용에 집중하며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이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③ ㉢ : 발표 내용을 일상 매체에서 접한 소식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 : 발표 내용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 : 발표 내용에서 제시된 해결책이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판단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38~42] (가)는 학급 토론회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 오늘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예술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저희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예술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명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분류로 보면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방 논변을 고안한 미국의 분석철학자 존 설은 약한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인 강한 인공지능조차도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은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입력된 지시 및 학습된 작품과 예술 정보를 조합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 작품에서 독창성이 없다면 창작이 아닌 고도의 표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림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기업과 작가들과의 여러 표절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표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건수는 직전 연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의 건수 및 규모는 증가할 것이며 이런 갈등의 예방은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 2 :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고도의 표절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인간도 기존의 예술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2017년 이미 인공지능에게 전자 인간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진짜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예술성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찬성 1 : 인간도 오마주나 패러디, 리메이크가 아닌 이상 인공지능처럼 독창성 없이 실제 작품들의 조합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법적 조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유사하게 그리는 것만 표절에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인공지능이 유사하게 그리는 것은 예술 행위에 범죄가 아닌걸까요? 차라리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예술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지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 저희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발명되었을 때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도 새로운 예술 분야로 인정받게 된다면 사진처럼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존 설의 의견에 반론하는 시스템 논변은 과정이 무엇

이든 간에 결과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공지능의 작품 중에는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정도의 훌륭한 작품도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데에는 인간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니 작품성은 높고 들인 시간은 적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작업량이 많은 작품을 만드는 인간을 보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 2 : 작업 시간이 짧은 점을 장점으로 보셨는데요, 인공지능보다 작업 시간이 긴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의 이런 면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창작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술의 후퇴가 발생할 것입니다.

반대 1 : 인공지능은 주장하신 것처럼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그려진 그림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공지능이 그럴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예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나)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그림 자체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그림이 그려진 머그컵, 티셔츠 등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사용된 그림은 인간의 그림을 보고 배워 모방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린 작품 및 그와 관련된 상품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악용하여 결과물을 손쉽게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사진, 심지어 일반인의 사진으로도 인공지능이 딥페이크 포르노, 가짜 사진 등을 양산하여 초상권이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결과물은 점점 정교해져서 인공지능의 제작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준다면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은 확실히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학습하는 데 쓰이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해결되고, 합법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인간보다 작업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걸리기 때문에 인간 창작 작업의 보조 역할로 쓰일 수 있다. ㉠ 인공지능의 그림은 예술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8. (가)의 '찬성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발언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을 제시한 후 그 이론의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바가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접 겪은 경험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부각하고 있다.

39. (가)의 토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b>[쟁점 1] 예술의 조건은 무엇인가?</b></p> <p>○ 찬성 1 : 독창성이 없다면 예술이 아닌 고도의 표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p> <p>○ 반대 1 : 높은 가격에 팔리는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고 예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①</p>
<p><b>[쟁점 2]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b></p> <p>○ 찬성 2 : 인공지능의 빠른 작업 속도를 보고 좌절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가 꺾이고 예술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p> <p>○ 반대 1 : 인간이 인공지능이 그릴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예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p>
<p><b>[쟁점 3] '인공지능의 생산물을 작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쓰인 근거</b></p> <p>○ 찬성 1 : 존 설이 강한 인공지능조차도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했으므로 약한 인공지능인 현재의 인공지능은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p> <p>○ 반대 1 : 시스템 논변에서는 결과물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데 결과물이 나왔으므로 작품이다. ....⑤</p>

4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정확한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에서 '반대 2'는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③ [B]에서 '찬성 2'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고 있다.
- ④ [B]에서 '반대 1'은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 '반대 2'와 [B]에서 '찬성 2'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41.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 반대 신문보다, 범죄와 관련된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의 실제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② 찬성 측 입론과 달리, 인공지능이 예술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정해야겠어.
- ③ 찬성 측 입론처럼, 권위자의 견해를 넣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보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 ④ 반대 측 입론처럼,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에 장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어.
- ⑤ 반대 측 반대 신문처럼,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의 장점을 인정하되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해야겠어.

42. <보기>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초고의 ㉠을 고쳐 쓴 것이다.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공지능의 그림은 예술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활동의 정확한 기준과 규제가 정해진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해.
- ②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해.
- ③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활용과 인간이 그린 그림의 활용을 본질적으로 비교해야 해.
- ④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활용할 때 아무 조건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해.
- 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사용자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각해야 해.

[43~45] 다음은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의 여러 분야 중 철학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술이나 역사에 비해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분야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철학자의 이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퀴즈 문제로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정말 유명한 몇몇 철학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정답을 맞추지 못한다. 종종 이름은 알더라도 그가 주장한 사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예능 퀴즈 문제로 등장해 화제가 된 스피노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명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거나, 스피노자가 한 명언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을텐데 사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명언과 관련해 들어보지 않았다면 평소 철학에 관심이 있던 친구나, 문과 친구들 중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혹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 정도가 스피노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피노자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사상을 잠깐 소개하자면,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모든 사물을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동요인 정념에 예속되면 자신의 존재 역

량인 코나투스(가) 감소되므로 이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로는 에티카(Ethica)가 있는데 윤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신과 인간 뿐만 아니라 정신, 감성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철학에 관해 관심이 가지 않는다면 철학자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철학 공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대교 신자였던 스피노자는 숭배하는 신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파문을 당했고, 광신자의 공격을 받았다. 사상만 들었을 때보다 흥미롭지 않은가? 요즘, 이런식으로 딱딱하게 수업하는 것 같은 방식이 아닌 흥미를 유발하며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책이나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호응도 높다.

[A]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화제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 철학자 중 한 명의 사상과 업적을 언급해야겠어. ㉡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의 뜻을 설명해야겠어. ㉢
- 여러 자료를 제시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밝혀야겠어. ㉣
-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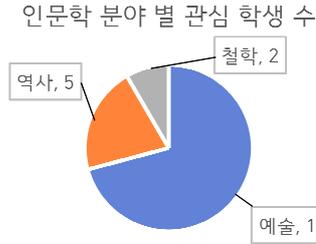
"초고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 비유를 사용해 주제에 대한 태도를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어."

- ① 철학 공부를 마음먹어도 시작이 어려울 수 있다. 천릿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유명한 철학자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 ② 반면에 철학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철학자 밀의 명언을 들려주자.
- ③ 인문학, 그중에서도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방송 매체에서 철학과 관련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친구들과 철학 스터디를 하든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지식 사회의 선구자가 되어보자.
- ⑤ 당장 핸드폰을 켜 재미있는 철학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철학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지식으로 배가 부를수는 없지만 두뇌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나) 학생 인터뷰

"나는 문과생이고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해서 많은 철학자에 대해 배웠어. 며칠 전 예능에서 화제가 된 스피노자에 대해서도 배웠지. 그런데 이과생인 내 친구는 스피노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 윤리와 사상은 문과생이라도 모두 배우는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라 철학에 관심 없고 굳이 공부하지 않는 친구라면 모를법도 하다고 생각해."

(다) 신문 기사

<10분만에 배우는 철학>은 긴 영상을 지루해하는 젊은 세대와 철학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매 회마다 한 철학자를 선정해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와 사상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월간 화제성 조사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① (가) :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1문단에 추가한다.
- ② (나) :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문과생은 예시로 든 예능 예피소드를 이해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나) :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운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한 현대인의 긍정적 시선을 부각하는 자료로 3문단에 추가한다.
- ④ (다) : 철학 사상과 철학자의 생애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⑤ (다) : 월간 화제성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된다면 철학도 관심을 끄는 콘텐츠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